



지난 9일 오전에 남가주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지역별 회장단들은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절 연합예배의 장소와 일시를 발표했다.

남가주 부활절 연합예배 10개 지역서 드린다

1947년 서울 남산 조선신궁터에서 최초의 부활절연합예배가 열렸다. 현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의 시조인 조선기독교연합회와 주한미군의 주최로 열린 연합예배에는 1만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예수 부활의 기쁨과 민족 부활의 감격을 누렸다.

당시 부활절연합예배는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치러진 것이라 그 기쁨은 달랐다고 한다.

오는 4월 21일 부활절이 두 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인교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부활절 준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올해 부활절 예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남가주 전역에서 지역별로 연합해 드린다. 지난 9일(화) 오전 11시 30분 남가주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지역별 회장단들은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의 장소와 일시를 발표했다.

엘에이지지역은 부활절 당일인 4월 21일 주일 새벽 6시에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며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설교한다.

OC지역은 21일 새벽 5시 30분에 미주비전교회(이서 목사)에서 이서 목사가 설교한다.

샌퍼난도밸리교역자협의회는 21일 새벽 5시 30분에 주안교회(최혁 목사)에서 모이며 김신일 목사(남가주마라톤교회)가 설교한다.

벤츄라지역은 21일 새벽 6시에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현 목사)에서 오정택 목사(주님의교회)가 설교한다.

사우스베이지역은 21일 새벽 6시에 산샘성결교회(윤석형 목사)에서 이상훈 목사(주비전교회)의 설교로 예배드린다.

빅토밸리 지역은 빅토밸리복음교회(김은호 목사)에서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가 부활절 말씀을 전한다.

남가주 중부지역은 21일 새벽 5시 30분에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모이며 방상용 목사(세리토스선교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동부교협은 21일 5시 30분에 ECO선한목자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며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가 설교한다.

인랜드지역교역자협의회에서는 부활절 예배는 각 교회별로 드린다. 이외에도 샌디에고 북부지역은 21일 새벽 5시 30분에 팔로마장로교회(서명성 목사)에서 김진현 목사(선한목자교회)가 설교하며, 남부는 같은 시간 소망교회(이창후 목사)에 모여 정수일 목사(샌디에고한빛교회)가 설교한다.

베이커스필드 지역은 21일 새벽 6시에 ANC온누리교회 베이커스필드 캠퍼스에서 여승훈 목사의 설교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EM 부활절 새벽예배는 21일 오전 5시 30분에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에서 드린다.

[社告] 목회자 프로필 사진 무료 촬영

기독일보 신문사가 사무실을 이전하여,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민목회를 하시며 한인들을 돌보고 계신 목회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신 멋진 모습을 어디든 자신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멋진 프로필 사진을 스캇김스튜디오(scottkimstudio.com)를 운영하고 있는 사진작가

스캇 김 씨가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 모두 환영합니다. 전화로 예약하시면 촬영 가능합니다. 일시는 오는 5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장소는 기독일보 사무실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기독일보(213-739-0403, 213-434-1170)로 하시면 됩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란 여성들의 모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박해 증가하는 이란 기독교 그러나 폭발적 성장”

오픈도어즈, 가정교회 지도자 사연 전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이 기독교는 박해에 직면했을 때 확장되었고, 박해받는 이란 기독교 역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오픈도어즈가 최근 밝혔다. 오픈도어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란 가정교회 지도자 출신의 Y목사의 사연을 전했다.

현지 사역자인 Y목사는 오픈도어즈팀을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로 초청했다. 그는 “이곳에서 매주 200여 명씩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다. 보통 거실 규모의 공간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예배를 드

리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랐다고.

그러나 결국 그는 이란을 떠나게 됐다. 그는 좋은 삶을 살았고, 세탁소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유로 계속된 압박을 받은 끝에 현재는 수 천 명의 난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Y목사는 두 살 반된 아들을 둔 아버지로 이혼을 경험했다. 그는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은 아니었다. 낄 슬프게 했다”고 말했다.

Y목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실제적인 우울증을 겪었다. 평생을 어머니와 [2면에 이어서 계속]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제 7회 ATI 선교대회
 7th ATI MISSION CONFERENCE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18

이 시대 마지막 선교의 불모지인
 북아프리카에서
 현지지도자 훈련과 교회개척을 위한
 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Speakers

김상민 목사 헤이븐비전교회 담임 미주한인교회 총회장	고승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담임	이윤영 목사 생안교회 담임	채희석 목사 프랑스 파리 아르메이시비전교회 담임	Zephyrin Kossi Amegble Jesus the Saviour Gospel Church 담임	Tounde Alphonse Trenou Ministere International Parole Agissante 대표

2019. 4. 29.30 (월),(화) 7pm
Faith Chapel 조은교회
 700 N. Valley St. Suite A, Anaheim, CA 92801; www.faithgcc.org

2019. 4. 30 (화) 9am~3pm
남가주늘사랑교회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www.ebcsocal.com

주관 : ATI Mission | 대표 박우원 목사
 문의 : 윤화숙 전도사 | 213-234-8277
 yunhwasook1024@gmail.com

ATI, American Theological Institute



대신 남가주 노회 춘계 정기 노회 및 목사 임직식이 7일 오후 4시에 풍성한교회에서 열렸다.

예장 대신 남가주노회 정기노회 및 목사 임직식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 남가주 노회 춘계 정기 노회 및 목사 임직식이 7일 오후 4시에 풍성한교회(박효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1부 목사 임직식 예배와 2부 65차 정기노회로 이어졌다. 1부 임직식 예배는 기도예 김호 목사(부노회장), 설교예 류당열 목사(노회장), 성찬식 집례예 이순권 목사(미주대신대 와싱턴 분교 부총장), 권면예 박효우 목사(증경 노회장), 축사에 강부웅 목사(증경노회

장) 축도에 김봉훈 목사(전 백석대 교수)의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 중간에 감지영 선교사, 장성욱 선교사 위촉 시간이 있었다. “나는 선한 목자라”(요 10:11-15)란 제목으로 설교한 류당열 목사는 “예수님께서 양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에 비유되고 있다. 유대의 중심부는 베냐민에서 헤브론에 이르는 55km 거리의 고지로서 좌우로는 광야로 내리닫는 황무지가 낭떨어지를 이루고 있고 승냥이

들과 양 도둑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며 “그래서 목자들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 양떼를 지키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이 비유에서 선한 목자는 문자 그대로 당신의 전적 희생을 통해 구속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다”고 강조했다. 목사 임직을 받은 휴고(Hugo) 목사는 멕시코에서 10세에 미국이민을 와서 미주대신대(M.Div)를 졸업했다.

APU 존박 부총장, “성소수자 허용 사실 아냐” “학생 핸드북 내용 바뀐 적 없어”



APU 수석부총장인 데이빗 빅스비 박사(좌)와 존 박 부총장(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주사퍼시픽대학교(이하 APU) 성소수자(LGBT)를 수용하기로 한 결정이 교내 학생신문사의 오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 9일 열에이 한식

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APU 수석부총장인 데이빗 빅스비 박사(좌)와 존 박 부총장(총장 특별 자문)이 참석했다. 존 박 부총장은 “학교 학생 핸드북 내용이 바뀐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모든 내용이 바뀌

어서 나갔는지 저희가 오히려 질문하고 싶다”라며 “핸드북의 인간성(Human Sexuality)에 관한 부분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만 이뤄진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지역 언론사인 샌가브리엘밸리 트리뷴지는 APU가 동성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기존의 학생 가이드북이 오래 전에 만든 것이다 다시 검토할 필요성은 있었으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APU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종합대학으로, 신학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있다. 한인들도 상당히 재학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 '박해 증가하는'에 이어서 계속] 함께 자랐던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사랑이 없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야 했다. 무슬림으로 자랐으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이슬람으로부터 멀어졌다. 10대일 때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새로운 신앙을 전해 주었다. 그는 “내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내 안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내 우울증이 낮기 위해서는 항상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면에서부터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가정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신자들은 그를 조건없이 사랑하고 수용해 준 반면, 바깥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가 나를 거부하셨고, 직장에서도 나를 거부했다. 나를 무슬림이라고 언급한 공문서에는 서명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그는 지하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이후 이를 이끌었다. 그는 “어느날 교회로 가고 있는데 정부의 연락을 받았다. 이후 항상 누군가로부터 미행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휴대폰도 도청을 당했다. 이란에서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긴장이 높아지면서, 교인들은 정부의 눈을 피해 일년 동안 2~3명의 소규모로 흩어지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25명의 신자들이

이 모여있을 때, 보안군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 아이들이 두려움에 질려 울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이를 지켜 보기 힘들었다.” 결국 Y목사와 교인들은 교도소에 수감됐다. 처음엔 독방에 수감돼 있다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마치 도서관의 책들처럼 붙어서 자야했고, 화장실 사용도 여의치 않았다. 교도소 내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Y목사의 폐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중중 교도소에서 나오는 꿈을 꾸기도 했지만, 일어나면 여전히 수감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건과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해도, 한 가지 여전히 한 것이 있었다. 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심지어 전도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했다”고 말했다. 미국 오픈도어즈는 “교회는 교도소 안에서 죽지 않았다. Y와 교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수감, 연이은 압박과 추방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교연구단체인 오퍼레이션 월드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1979년 기독교인들은 대략 500명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50만 명으로 증가했다. 지하교인의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 1990년 이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설립된 엘람 미니스트리즈는 “이란에 이슬람이 들어온 이후 13세기보다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인이 된 이란인의 수가 더 많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기쁜우리교회, 손인식 목사 초청 부활절 기념 ‘봄말씀잔치’

글렌데일에 위치한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는 부활절 기념 특별행사로 봄말씀잔치를 4월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총 사흘간 이 교회 본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말씀잔치에는 손인식 목사(베델교회 원로목사, UTD-KCC 선교연합대표, 이민목회연구원 원장)가 강사로 서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의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일정은 4월 19일(금) 저녁 7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4월 20일(토) 새벽 6시 “약점과 약함”, 4월 20일(토) 저녁 6시 “이렇게 살자”,

4월 21일(주일) 2부예배(오전 9시) “마침내”, 4월 21일(주일) 3부예배(오전 11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 4월 21일(주일) 저녁 6시 “평범과 비범”이다. 김경진 목사는 “올해 초에는 단비가 많이 내려 꽃이 만개하는 봄을 맞게 됐다. 봄말씀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영혼의 꽃을 활짝 피우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봄말씀잔치가 열리기 전 일주일 동안 “십자가로 가는 길(Via Dolorosa)”라는 주제로 특별세례기도회를 갖는다. 문의) 818-662-0400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기쁜우리교회 부활절 기념 봄말씀잔치

주제 :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강사: 손인식 목사

초청합니다!!

올해 초에는 축복의 단비가 많이 내려 황량했던 산과 들에 꽃들이 만발하는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단비로 영혼의 꽃을 활짝 피우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기쁜우리교회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봄말씀잔치를 열고자 합니다. 말씀 잔치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

일시: 4월 19일(금) ~ 21일(주일)

4.19 (금) 저녁 7시 -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 6:1-3)
 4.20 (토) 새벽 6시 - “약점과 약함” (고후 12:9)
 4.20 (토) 저녁 6시 - “이렇게 살자!” (벧후 1:4-7)
 4.21 (주일) 2부, 오전 9시 - “마침내” (창 12:1-5)
 4.21 (주일) 3부, 오전 11시 -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 (창 50:15-21)
 4.21 (주일) 저녁 6시 - “평범과 비범” (예 4:13-16)

강사: 손인식 목사
 예비인 베델교회 원로목사
 UTD-KCC 선교연합 국제대표
 이민목회연구원 원장

기쁜우리교회
 주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전화번호: 818-662-0400 . Fax: 818-662-0800

주차장 오시는길



ATI Mission의 서부 아프리카 현지 교회 지도자들. ATI는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의 선교에 뜻을 모아 설립됐다.

선교의 불모지, 불어권 ‘아프리카’ 복음화 ‘ATI 미션’ 미주 선교대회, 올해는 남가주에서 모인다

세계교회들은 선교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대서명이기 때문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은 모든 성도와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교활동의 관심을 비교적 덜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서부아프리카의 불어권 국가들이다.

아프리카의 전체 50개 국가 중 22개가 불어권이며 인구비율로는 거의 60%에 육박한다. 그러나 개신교 국가 다수가 영어권이다보니, 아프리카 선교도 주로 영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선교 전문가들은 이 시대 선교의 불모지로 불어권 서부아프리카를 꼽는다.

중동 오일머니의 영향력으로 아프리카 특히 서부아프리카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이슬람에 맞서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바로 ATI Mission이다. 이 단체는 한국과 미국 교회,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불어권 서부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뜻을 모아 설립된 단체이다.

ATI Mission을 모체로 하여 산하기구인 American Theological Institute(ATI)는 서부아프리카 현

지의 교회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있다. 북미주에서 신학을 공부한 교수 및 목회자들이 일년에 한 차례 이상 현지를 방문해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한다. 일년에 6~7회 정도 훈련을 하며, 40개월의 과정을 마친 후에는 전도유망한 졸업생들을 선발하여 지방 중소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파송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된 현지사역자들은 ATI Mission의 산하기구인 Church Planting Initiative (CPI)를 통해 전략적으로 교회개척에 나서게 된다. 현재 ATI Mission은 서부아프리카의 중심국가인 코트디부아르와 세네갈 다카에 현지베이스캠프를 운영 중이다. 극심한 이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지역은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90%의 교회가 아비잔이라는 중심 도시에 모여 있어, 지방에 교회개척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2012년 5월에 ATI 아비잔(Abidjan)에서 첫 수업을 시작한 이래, 약 40여명의 3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신학훈련의 기회가 희귀한 서부아프리카의 현지 목회자들은 체계적인 신학 훈련을 통해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 “강의가 깊이 있고 풍성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ATI Mission은 매년 한 차례 미주를 순회하며 선교대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에서 모인다.

4월 29일(월) 저녁 7시에 조은교회 Faith Chapel에서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30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낮 세미나를,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조은교회 Faith Chapel에서 오후 7시에 저녁집회를 갖게 된다. 이 집회에는 미주한인침례교회의 증경총회장인 김상민 목사,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가 주강사로 저녁집회를 섬긴다. 낮 세미나에는 파리 아르퀘이침례교회 채희석목사, 텍사스 샌안토니오침례교회의 이유영 목사가 나선다. 특별히 불어권 서부아프리카 현지 목회자인 제프린과 알폰소 목사도 초청되어 현지의 상황과 기도제목을 나누게 된다. 이번 선교대회의 등록은 무료이지만, 숙소와 식사, 세미나 자료 준비를 위해 사전 온라인등록이 필수이다. 다음의 링크로 들어가면 된다 (<https://docs.google.com/forms/d/16o7ROaxsvyWVFPgZBHXc2dKHhloD27ezs8HFAtrv6M/edit>). 문의: 윤화숙 전도사(213-234-8277, yunhwassook1024@gmail.com)

태평양법률협회, 부적절한 성교육 막아

태평양법률협회는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카운티의 한 중학교에서 가족계획협회의 주도하에 부적절한 성교육을 실시하려 한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해 이를 저지했다.

지난달 29일 몬테레이 근교 퍼시픽그로브 중학교 학부모들은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에서 성교육을 4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다는 소식을 태평양법률협회에 알렸다. 협회에 따르면, “이들의 성교육 커리큘럼은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학교 당국

은 부모들에게 일주일도 채 앞두지 않고 이를 알렸다.”

즉시, 이 협회는 공립학교가 캘리포니아 주법을 어긴 것을 발견하고 즉시 행동에 옮겼다. 본 협회 변호인단은 부모의 권리와 부모에게 통보하는 법령에 대한 법안 설명의 서신을 학교당국에 보냈으며 서신을 받은 교장은 즉시 가족계획협회의 성교육을 취소했다.

이 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립학교에 관한 일들이 산적해 있고, 가족계획협회는 지금 잠시 물러

나 있지만, 앞으로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 이들이 고안해 낸 성교육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협회는 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위한 자료를 개발해 왔다. 이 같은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Opt-Out-Form’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메일(rju@pji.org)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 이 협회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재정협력으로 수 많은 소송들을 이겨 나 갈 수 있다”며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요청했다.



속초 지역 한 크리스천이 제보한 산불 당시 시내 모습.

굿네이버스, 산불 긴급구호 진행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회장 양진옥)은 지난 4일(목),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2천만 원 규모의 긴급구호를 진행했다.

강원도 고성 근처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은 동해 인근 아산까지 피해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총 4,0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산불 발생 지역인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대에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발표했다. 굿네이버스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 상황과 필요 물품에 대해 확인한 결과, 우선 긴급하게 필요한 겨울용 담요 등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굿네이버스 한국 강원본부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현장의 욕구에 따라 추가 긴급구호도 진행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강원도 주민들을 도우려면 전화(877-499-9898)로 문의하거나 후원금 체크를 Pay to Good Neighbors로 하여 note에 강원도 산불이라고 적은 뒤 P.O. Box 5969 Buena Park, CA 90622로 보내면 된다. 한편, 굿네이버스 미국 법인은 배우 소지섭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해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아동을 치료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제 3차 소망 건강 콘서트가 4월 6일에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열렸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우울증 키워”

제 3차 소망 건강 콘서트가 4월 6일(토), 오전 10시 30분에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열렸다. 건강콘서트는 육체의 건강을 위한 전문가의 건강 세미나와 마음의 건강을 위해 음악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한인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기획됐다.

임정훈 실장의 Sing along 순서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은 후 임상심리학자인 존 박 박사가 ‘노인성 우울증’에 관해 강의를 했다. 그는 노인성 우울증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며, 간병인의 58%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한인 노인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

장벽 때문에 더 많은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우울증의 원인은 가족력 및 유전적 요인, 약물남용, 심한 스트레스, 질병들이 그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수면장애를 겪으며,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죽음과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치료방법으로는 상담과 약물치료, 대안치료들이 있으며, 사회활동과 영성활동, 신체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을 통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움직이 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19년 남가주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안내

- 엘에이지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6시
 장소: 남가주새누리 침례교회(백성근목사사무) (213.383.4982)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설교: 신승훈목사(주님의영광교회)
- 오렌지카운티 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5:30
 장소: 미주비전교회
 설교: 이서목사(미주비전교회)
- 밸리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5시30분
 장소: 주안의 교회(최혁목사사무)
 설교: 김선일목사(남가주마라톤교회)
- 벤츄라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6시
 장소: 옥스나드 한인 연합 감리 교회(남재현 목사사무)
 설교: 오정택목사(주님의교회)

- 사우스베이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6시
 장소: 산샘성결교회(윤석형목사사무)
 설교: 이상훈목사(주비전교회)
- 빅토벨리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5시30분
 장소: 빅토벨리복음교회(김은호목사),
 설교: 김성일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 중부지역교회협의회**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5:30
 장소: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목사사무)
 설교: 방상용(세리토스선교교회)
- EM Easter Sunrise Service in LA**
 Sunday April 21st at 5:30am.
 New Life Vision Church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목사사무)

- 베이커스필드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6시
 장소: ANC 온누리교회 베이커스필드 캠퍼스
 설교: 여승훈목사(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 샌디에고지역**
 시간: 2019년 4월 21일 주일 새벽 5:30
 북쪽장소: 팔로마장로교회 (서명성목사사무)
 설교: 김진현목사 (선한목자교회)
 남쪽장소: 소망교회 (이창후 목사사무)
 설교: 정수일목사 (샌디에고 한빛교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25)

본 광고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 한기형 목사)에서 제공합니다.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07>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2)

지난 7일 저녁 두란노 미주 목회자 아버지학교 제 14기가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마쳤다. 20명의 목회자 수료자들은 바쁜 목회 생활 가운데서 이 삼일간의 시간을 내어 참석하기가 녹록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잘 참석했다고 평을 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수료식에 함께 하였던 사모님들이 불과 한 주 만에 여러 면에서 삶의 모습에 변화가 생긴 남편의 모습을 바라 보는 눈이 신기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했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나눔이 만드셨다.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께 세우셨음을 배운다. 아버지는 가정 신앙의 전수자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고,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깨닫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매 만남마다 주어진 숙제를 실행해야 한다. 나의 아버지에게 손 편지를 쓰는 것에서부터 아내, 자녀들에게 편지쓰기, 가족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매일 축복기도하기, 아내,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발견하기, 아내, 자녀들과의 데이 트 등 평소 여유를 갖지 못하고 소홀히 했던 가족들간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며 익숙해지며 자연스러워진다. 그런 좋은 면에서의 아버지로서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점차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아버지학교의 스텝들의 헌신은 참으로 아름답다. 먼저 수료한 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아버지학교를 섬긴다. 때론 강사로, 진행자로, 예배팀으로, 중보기도팀으로, 관리팀으로, 행정팀으로 매기마다 자기에게 정해진 몫을 감당하며 물심양면의 헌신을 다한다. 그 안에는 다른 욕심이 없다. 한 가정의 아버지들이 회복되어 건강한 가정을 이룰수만 있다면 그것 밖에는 다른 바람이 없다. 이 모든 아버지학교의 뒤에서 묵묵히 후원해 주는 시애틀 형제교회의 권준 목사가 미주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지도목사로 섬기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

이렇게 아버지학교를 통해 이 시대 많은 아버지들이 참다운 아버지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 교회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함을 갖는다. 아버지학교는 네 번의 만남을 통해 각 만남마다 다른 주제로 강의를 통해 아버지성을 깨닫고 그릇 위크업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되며 속제와 발표를 통해 아버지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갖는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1. 아버지의 영향력을 배운다. 나의 아버지에게서 습득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서의 전수된 아버지성을 반성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더욱 발전된 아버지의 영향력을 전수하겠다는 각오가 생긴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2. 아버지의 남성성을 배운다.

아버지의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왕, 전사, 스승 그리고 친구로서의 모습이다. 이런 요소들의 남성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버지임을 자각하며 가정 안에서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까를 깊이 묵상하게 된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3. 아버지의 사명을 배운다.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로 앞으로의 삶을 살 것인가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 전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함을 깨달아 가족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진다. 네 번째 만남은 4. 아버지의 영성이다. 가정은 하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신약의 행복어 카라(x α ρ ά)와 카이로 고찰(2)

성경은 행복학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행복을 선포합니다. 신약과 구약에는 행복어가 많습니다.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카라(Xαρα)와 카이로(Xαίρω)도 중요한 행복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큰 기쁨을 표현합니다. '카라'는 '큰 기쁨' 혹은 '큰 행복'이란 의미입니다. 카이로는 '크게 기뻐하다'의 의미입니다. 카라와 카이로는 기쁘고 즐거운 감정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이 두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합해서 150회 정도 등장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 두 단어와 어근이 같은 말이 카리스(xαρις) 즉 은혜라는 말입니다. 카리스(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카라나 카이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성경적 행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 카라와 카이로가 동시에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행 8: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 로 말씀합니다. 빌립 집사와 그의 동료들이 환란을 피해 도망갔던 사마리아성에서 복음을 전했다니 큰 기쁨이 사마리아성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성에 임한 이 큰 기쁨(πολλή Χαρά)은 지극하고 넘치는 절대 기쁨, 절대 행복을 의미합니다.

8장 39절에 동사 카이로(Xαίρω)가 등장합니다. “물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When they came up out of the water, the Spirit of the Lord suddenly took Philip away, and the eunuch did not see him again, but went on his way rejoicing.)” 여기서 “기쁘게 (Rejoicing)”가 카이로(Xαίρω)의

분사형입니다. ‘행복한’ 혹은 ‘기쁘고 즐거운’입니다. 동사 카이로에서 온 말입니다. 내시가 수레(병거)성경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가운데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행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로이 광야길을 가면서도 은혜 받아 외로움도 괴로움도 없는 절대 행복을 “카이론(χαίρων)”으로 표현합니다. 카라와 카이로가 담아내는 행복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행복이요 절대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 기쁨이 표현된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행복어 카라와 카이로가 전하는 행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카라와 카이로는 주님이 오심으로 누리는 행복입니다. 주님의 강림으로 누리는 행복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쁨의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44절, 58절 그리고 2장 10절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포괄적 기쁨과 행복을 표현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행복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둘째 카라와 카이로는 주님께서 주셔야 누리는 행복입니다. 행복의

기원자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 종종 행복의 기원이나 행복을 주신분에 대하여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행복과 기쁨의 이유를 모른 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that my joy might remain in you, and that your joy might be full.)”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예수님께서 주심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셔서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아울러 주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충만한 행복, 충만한 기쁨은 행복으로 가득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는 성령충만한 성도의 감정 상태입니다. 이 행복충만한 상태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이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건강한 성도는 행복충만한 사람입니다. 충만한 행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카라와 카이로는 주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행복입니다. 눅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가 행복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누린 행복이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행복이 없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심령은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긴밀히 교제함으로 큰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장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5세~75세 대장암 검사 권고, 선착순 100명 무료 검사

매달 유익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LA온누리교회(주)가 오는 4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대장암, 예방과 검사’라는 주제로 건강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시더스-사이나이 병원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관계자들을 초청, 대장암을 일으키는 위험요소와 예방법, 정기 검사 방법, 대장암 진단과정, 치료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 주최 측 관계자는 “

대장암은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사망률 3위 안에 드는 대표적인 암이지만 정기 검진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암이기도 하다”면서 “대장암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배우고 예방을 위한 정기 검사 방법도 안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이날 세미나에선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미국암학회(ACS)는 대

장암 검사 대상으로 45세부터 75세 남여는 누구나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가족력이 있거나 특정 용종이 발견된 적이 있는 사람은 45세 이전에도 정기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76세부터 85세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예약은 인터넷 웹사이트(www.yudogo.com)에서 가능하며, 전화 예약은 310-423-7410으로 하면 된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창설 15주년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권태일 목사
월드쉐어 설립자

국제 구호 NGO World Share USA가 창설 15주년과 사무실 이전을 감사하며 아래와 같이 감사예배를 준비하고 정중히 초대합니다.

- 일시** 2019년 4월 25일(목) 오후 5:00
- 장소** 아로마 윌셔센터 5층 대연회장
3680 Wilshire Blvd, 5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 내용** 찬양예배, 축하행사, 만찬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테이블 리더 혹은 강태광 목사에게 4월 20일(토)까지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orld Share USA
3020 Wilshire Blvd, #160, LA, CA90010

▪ 행사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죽음은 딱 막힌 문이 아닌, 다음 세상으로 나가는 관문”

정현채 전 서울대 의대 교수 강연, 죽음을 긍정하는 웰 다잉 문화 강조

“여기 화장터에서 오래 일하면서 알게 됐다. 죽음은 문이야. 죽는다는 건 끝이 아니야. 죽음을 통과해 나가서 다음 세상으로 향하는 거지. 난 문지기로서 많은 사람을 배웅했지”

2008년도 영화 ‘굿바이’의 한 대목이다. 주인공은 실직한 후 고향에 내려가 장례 지도사로 일하면서 겪는 과정을 다룬 영화다. 주인공의 고향 친구, 곧 그의 어머니가 입관하면서 고향친구는 오열한다. 그때 화장터의 불 지피는 노인이 그에게 한 말이다. 죽음은 문이라고, 다음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라는 걸.

각당 복지재단은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죽음, 그 이후’란 강연회를 6일 연세대 상경대에서 오후 5시에 개최했다. 먼저 전 서울대 의대 내과학 정현채 교수가 ‘죽음은 소멸이 아닌, 옮겨 감을 놓고 발제했다.

그는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죽음을 삶의 관문’으로 여기는 생각이 퍼져있다”며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준비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렸다”고 했다. 반면 그는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무관심, 냉소, 회피 그리고 혐오의 반응을 보인다”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삶에서 방치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가령 그는 “개 똥 밟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연습이 적다보니, 가족이 환자의 죽음을 돌보는 일을 병원이 대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자본주의적이고 조직화된 병원의 시스템 속에서 격리된 채 환자는 외롭게 죽어간다”고 말했다. 원인으로 그는 “20세기에 들어 의학 기술의 발달로, 유물론이 팽배해진 결과”라며 “자연스레 생명연장만 강조하고 죽음을 터부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그는 “의료진도 죽음을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중요한 단계’로 보지 않고, ‘의료의 패배나 실패’로 보는 시각”이 이런 시류를 강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만을 주게 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진이 매달리는 것도 이런 가치관에 기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죽음은 딱 막힌 벽이 아닌 다른 세계로 나가는 또 다른 관문임을 그는 재차 강조했다. 서두에 밝힌 일본 영화 굿바이의 한 대목을



각당 복지재단은 창립 28주년을 기념해, ‘죽음, 그 이후’란 강연회를 6일 연세대 상경대에서 오후 5시에 개최했다. ©각당복지재단

놓고, 그는 “영화 속 노인처럼 죽음을 문으로 보는 생각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긍정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긍정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스위스 의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브 융은 그의 수제자 폰 프란츠 여사에게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닌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란 유언을 남겼다.

또 융 자신도 생전의 편지에서 “죽음의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해서 우리의 상상이나 감정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죽음을 미지의 어둠으로 또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관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삶의 태도와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정 박사는 주장한다.

21세기 의학 기술의 발전이 물질주의 관점으로 죽음 저편의 세계를 거부한 시각을 강화했다. 다만 그는 “의학기술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비과학적 영역의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근사체험(Near death experiece)”인 셈이다. 그는 “최근 심폐소생술의 발달로, 동공 반사와 심장 박동이 멈춘 사람들의 생존율이 높아졌다”며 “잠시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에서, 죽은 나를 바라보는 임사체험의 사례 보고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심폐소생술로 생존한 10~20%의 사람들이 근사체험을 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뇌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약물이나 전기자극, 저산소증으로 일어나는 착각”이라고 반박하지만, 그는 “약물로 동반되는 체험은 기억이 조각나 정리되지 않고, 대부분 두려움과 공포를 수반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근사체험을 두고 “저산

소증으로 뇌에 의한 착각이나 환상이 아닌, 철저한 영적 체험”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근사체험 와중에 생의 회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소, 삶의 심대한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뇌가 헛갈리는 현상은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면 근사체험의 경험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는 2001년 의학 학술지 Lancet에서 네덜란드 여러 병원에서 조사된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Lancet은 1823년 영국에서 창간된 권위 있는 학술지로, Impact factor(학술지의 영향력 지표)가 15.3이다. 전 세계 학술지 중 3위에 해당하는 저명한 의학 학술지이다. 그는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난 344명을 조사한 결과, 18%인 62명이 근사체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근사체험의 열 가지 요소를 인용했다. ▲ 자신이 죽었다는 인식(50%) ▲ 긍정적인 감정(56%) ▲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지와 만남(32%) ▲ 터널을 통과함(31%) ▲ 천상의풍경을 관찰함(29%) ▲ 체외이탈 경험(24%) ▲ 밝은 빛과의 교신(23%) ▲ 색깔을 관찰함(23%) ▲ 자신의 생을 회고함(13%) ▲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지함(8%)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이 연구에서 근사체험자 23명과, 소생하기를 했지만 근사체험을 하지 않은 15명을 비교했다”며 “그 결과 무경험자에 비하여 근사체험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과 이해를 더 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큰 폭으로 감소하

고, 나아가 사후생(死後生)에 대한 믿음과 일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그는 “몇 분밖에 안 되는 짧은 순간의 체험이 8년 뒤까지도 큰 영향을 준 것”이라 평가했다. 죽음 너머를 잠시 체험해 해준 근사체험(Near death experience)이 결국 죽음을 삶의 일환으로 긍정하고, 나아가 죽음의 경계선을 항상 유지하기에 삶은 더욱 긍정적 에너지로 채워진 셈이다.

그에 따르면, 스위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인간의 육체는 영원불멸의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며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어린이 환자를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이 임종 때 경험하는 공동된 현상과 연령, 성별, 인종, 종교의 유무나 종류와 상관없는 근사체험을 수십 년간 관찰해 얻은 결론이라고 한다. 한 때 베스트셀러였던 <인생수업>의 저자이기도 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타임지에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정 박사는 “로스 박사는 죽어 가는 어린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고치 별레 형태로 있다가 뒤집으면 날개가 달린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형광인형을 늘 갖고 다녔다. 이 인형을 통해 비유적으로 죽음은 새로운 비상이라고 아이들을 위로했다”고 했다. 2004년 로스 박사의 장례식에서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모든 참석자들은 봉투를 열어 형형색색의 나비들을 일제히 날려 보냈다. 이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이에 정 박사는 “이는 생전 그녀가 갖고 있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대변 하는 것”이라 역설했다.

결국 논의를 확장해, 정 박사는 “이 세계 속에 우리는 2차원에 사는 존재와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따라서 그는 “앞뒤좌우가 전부인 줄 알던 평면적 존재는 사면체, 육면체 같은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죽음 너머의 세계는 우물 안 개구리였던 우리를 잠엄한 바다가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고 긍정했다. 게다가 그는 한 물리학자의 말을 인용해 “사람들은 모르는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을 두려워 하지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실은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든다는 것”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이끼루’를 빌려 논의를 진전 시켰다. 그는 “주인공은 퇴근길 잠시 멈추어 서서 저녁노을을 바라며,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모르고 30년 살아왔구나,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구나’라는 대사를 빌렸다. 영화 속 주인공은 암으로 시한부를 앞둔 상황이다. 이에 그는 재차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죽음문화 전문가인 알폰스 데켄 신부의 말을 인용했다. 데켄 신부는 영화 이끼루를 놓고, “주인공은 죽음에 임박해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기쁨과 만족감을 느꼈다”며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보다 빠르게 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박사는 미국 심리학자의 말을 빌려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진다면, 공동묘지를 걸어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자신과 남에 대한 해악을 최소화하는 생각과 자세를 갖게 됐다”며 “죽음에 대한 자각은 인내심, 평등의식, 연민, 감정이입 그리고 평화주의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과학자였던 프랑스의 샤르댕 신부(1881-1955년)를 빌려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된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직업의 고하(高下),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고귀한 영적 존재”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고귀한 영적 존재인 우리가 상호연결성 속에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까지와 사뭇 다른 의미로 나와 서로를 대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한편, 정현채 박사에 이어 죽음학회 회장이자 이화여대 한국학과 최준식 교수는 ‘사후생(死後生)’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노형구 기자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정회원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기독교 상담학 학사 및 석사 과정 TRACS 인준 축하

학위과정	다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D.Miss)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MACC)
특혜	신학사(BA) 기독교 상담학 학사(BACC)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20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입학 문의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미국의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4월 한달 입학비 면제 이벤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4월 한 달간** 입학정보 신청 및 온라인입학원서를 제출하시는 분에게 입학시 입학비 **\$80**을 면제해 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LA 확장 강의 센터 운영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175)

• 찾아오시는 길





하나님이 없다하는 자의 하나님

시편 53: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시편 53:1-6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게 되고 방종하며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속성을 피 가운데 되물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해서 '목표가 어긋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육체를 흙을 재료삼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을 코로 불어 넣어 주시어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흙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 흙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흠모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적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절의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2절의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동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각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고도 하며 일반계시라고도 합니다. 계시(啓示, revelation)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심을 말합니다.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특별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체함과 감동, 조명과 계시, 성령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는지,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2절). 4절에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우는 사자가 삼킬 대상을 찾아 노리듯이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을 삼켜서 지옥에 토하라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5절의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양심은 영혼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성을 잃고 하나님이 없다고 허황된 허구를 외치고 광기를 일삼는 사람들도 정신이 온전할 때는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기 바쁜 것은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장담하고,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악질들, 심령이 화인맞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속에도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계획을 세우고 발악하고 훼방하고, 대적하고, 위협하고, 때리고 욕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양심 밑바닥에는 자신이 전혀 두려워할 환경도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여 교구장에 전화할 받게되면 집안에 대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하루종일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양심에 잘못됨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주일에 대사가 있게되면 토요일이나 주일 전에 찾아가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축의금도 전달하며 상황을 잘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자주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입니다. 성도가 땅에 사는 동안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훼방과 대적과 핍박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마귀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 소속관념을 분명히 해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성령을 모셔 살아갈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늘시민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당하는 어떠한 핍박과 고통도 참고 이겨내서 끝까지 하늘 영광중에 결실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늘 지켜보시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종국(終局)에는 본문 6절과 같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교회를 의미하며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백성을 대칭(代稱)하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은 반드시 성도가 승리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하고 타락해가고 세속화 추세로 현실에 자꾸만 빠져들게 될 때 하나님은 환란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짓이었던 가짜신도는 세상으로 다 넘어지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심겨진 성도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한 세력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증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외과 주임교수인 샘이 있었고 같은 대학에 물리과 주임교수인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 친한 사이이지만 샘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인이고 톰슨은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객기를 부리고 큰소리를 치며 자신의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는 사람을 간섭하고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는 자기 것이니 내 마음대로 원하는 인생으로 만끽하며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톰슨에게 샘은 열심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수술을 했음에도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서 두어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석 달이 넘어서 그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톰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온 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듯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 나온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찰을 해봤더니 사방에 퍼져있던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는데 불에 탄 흔적만 남아 있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톰슨에게 말을 했을 때 톰슨은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라. 너가 예수 울무로 나를 얽어매

려고 온갖 말로 유혹하고 설득하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게 벌을 줘보라고 해봐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6세였습니다. 샘은 늘 톰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49세가 되던 해 샘은 그의 부인으로부터 다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알아보니 그가 에이즈에 걸려 살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 처치 후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잠을 계속 못 잔다는 것입니다. 잠만 자면 온갖 구렁이가 자신을 통째로 삼키려고 온몸을 감고 목을 조여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날 샘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해 주실까?" 하고 묻습니다. 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조여가시는 것은 너를 택하신 증거가 아니겠는가"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까지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냐는 친구 샘의 이 한마디를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고 매달리며 기도한 후 용서받은 평안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기와 소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톰슨은 "내가 멸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하며 후회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잘난 척 하지 말고 오로지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깨닫게 하심을 바라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AM1190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부 고

천국환송예배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 담임목사의 모친되시는 **최종진** 권사께서 2019년 4월5일 오전, 향년 94세로 소천하셨기에 삼가 부고를 드립니다.

장례 일정

천국환송예배

- 일시: 2019년 4월13일 (토), 오전11시
- 장소: 에브리데이교회 (본당)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91325

하관예배 (가족장으로 드립니다)

- 일시: 2019년 4월13일 (토), 오후 3시
- 장소: Rosehills Memorial Park (562-699-0921)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 장례위원: 당회원 일동
-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연락처: 818-832-6628 (에브리데이교회)

유 가족

장녀: 윤은희 사위: 윤태근
손자: 윤경식 손부: 윤지혜
증손자: Jonathan
손자: 윤양식

장남: 최홍주, 자부: 최여경
손녀: Tracy Yi 손서: Kevin Yi
증손자: Caden, Ian 증손녀: Isabella

차남: 최현주 자부: 최윤혜
손녀: Holly 손자: J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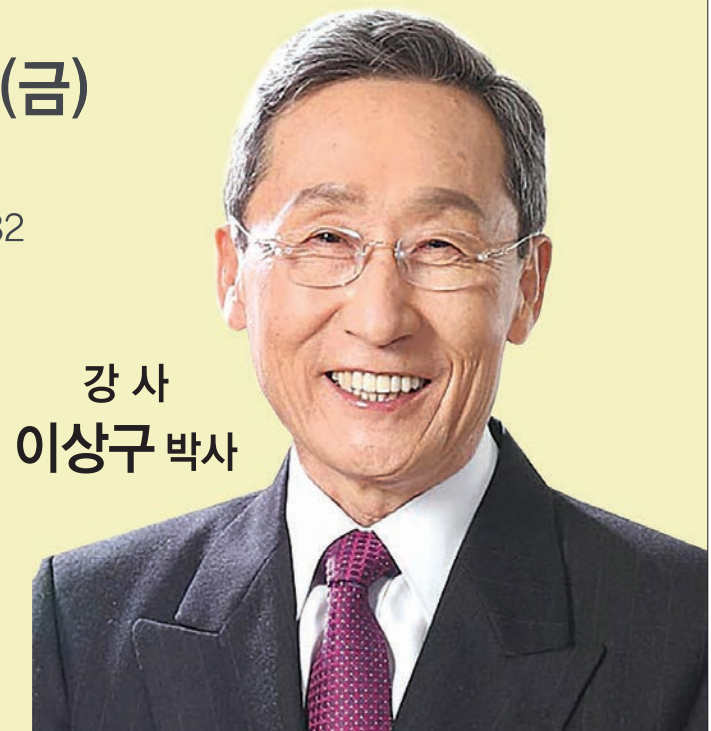
Healing Seminar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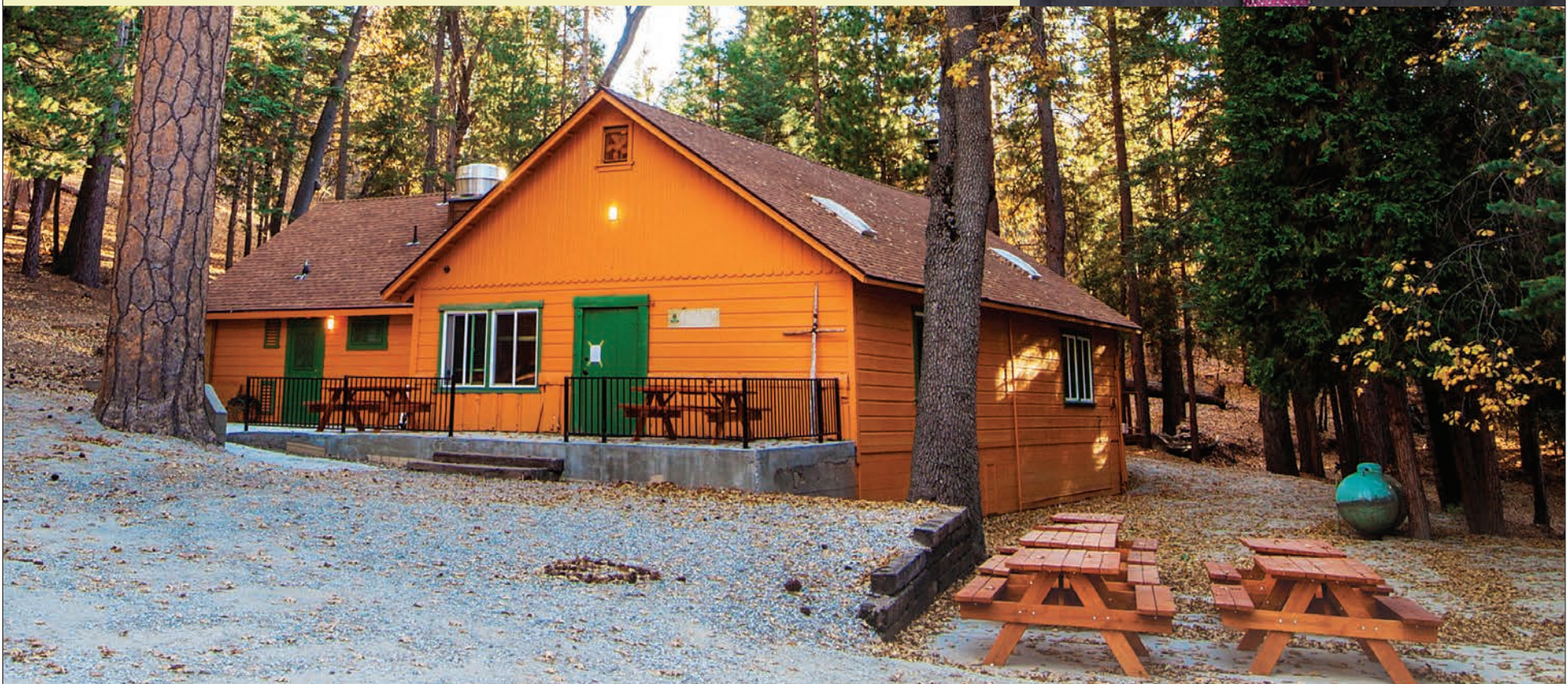
이상구 박사 초청

치유세미나

- 일시** 2019년 4월 30일(화) ~ 5월 3일(금)
- 장소** Conifer Camp Retreat Center
32900 Conifer Camp Rd, Running Springs, CA 92382
- 참가비** \$450(일인당), \$900(부부)
사역자 특별할인 전화 문의
- 문의** T.(626)810-3455 아름다운교회
email : beautifulchurch@gmail.com



강사
이상구 박사



안식교를 떠난 이상구 박사는
복음을 믿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루는 놀라운 치유사역을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참나무 숲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이상구 박사와 함께 치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건강식과 숙소가 제공됩니다.

baeksong.kr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

LA 백송교회 성령 컨퍼런스

오전 11:00 | 오후 7:30

주제: 오전 - 신유로 열리는 천국 | 오후 - 권능으로 열리는 천국

2019. 4. 24 (수) 오후 - 5. 4 (토)

주일제외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Berendo 사이 Holms Building Center 지하 1층,
Berendo길 혹은 New Hampshire길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LA 백송교회 (담임 김성식 목사)

변화

기적

치유

시기, 미움, 원망, 교만 등 내적 치유로
예수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
열매 맺는 삶으로의 변화와 성숙

찬양, 설교 등의 훈련
방언, 신유 및 갖가지 은사 체험,
영적전쟁의 체험적 이해

알코올/컴퓨터 각종 중독에서 자유,
기억상실증, 우울증, 공황장애 및
정신질환, 각종 암 등 영육의 질병 치유

문의) 213 674 7966 / 213 245 6616

213 249 4790

* 평일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월, 수, 금 7:30PM)

YouTube

유튜브에
이순희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김성식 목사

미국 LA 백송교회 담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서울신학대학원 M.div.
Fuller 대학원 TH.M.D.Miss



원미현 목사

백송교회 교육목사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서울신학대학원 M.div.

백송 이순희 목사

백송교회 담임목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영성수련원 원장
서울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M.div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해외지부 캐나다 토론토 백송교회 | 647 637 4013
11 Glen Cameron Rd. Thornhill, ON L3T 4N3

미국 로스엔젤레스 백송교회 | 213 674 7966, 213 245 6616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한국 인천본부 | 032) 469 0191, 032) 323 12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야산로 231번길 20

보령 백송 수양관 | 041) 931 0195~6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삼현길 191

대구지부 | 053) 644 0175
대구광역시 월배로 32안길 61 B1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미주성결교회

백송교회

중입자 암치료의 대표 조규면 박사 초청

암 치료 및 예방법 세미나

암 환자에게 희망이 되는 중입자 치료란 무엇인가?

입자치료를 중심으로 광역화치료와 면역세포치료를 병행하여 중증 암환자나 희귀암 환자를 치료합니다. 입자치료는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대상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혈액암도 면역체계복구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초기(1기)~4기(일부 전이된 암환자) 그리고 심지어 의료기관에서 치료 대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한 암환자까지 치료합니다.

- 일 시 : **1차** 2019년 4월 28일(주일) 오후 12:45~2:00
2차 2019년 4월 29일(월) 오전 10:00~12:00
- 장 소 : 마가교회 (181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참가비 : \$20 (좌석관계로 예약하신 분만 참석 가능합니다)
참가비 내시면 판매가 \$30 함초분말(250g)을 선물로 드립니다.
- 주 최 : 한국 중입자 암치료 센터, 기독교일보
- 주 관 : hempbiousa.com
- 문 의 : 기독교일보 T,(213)739-0403, (213)605-2772, 최형철 장로 (626)786-1814



조규면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캠프암초 제품 개발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THC Free
각기능없음

Dietary Supplement

대마햄프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신이 내린 항암식품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용한 천연진료제입니다.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
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CNS)는 미국암협회가 강
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 만성통증, 불안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대마씨 햄프초환은 미국 타입지에서 슈퍼푸드로
선정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지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지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함초는 Baja California 유네스코 지정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본 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MANUFACTURED IN THE USA

조규면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캠프암초 제품 개발자

CBD BAJAHAMCHO Inc. www.hempbiousa.com Tel.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기독교일보 “5월 가정의달 스페셜” 추억여행

“포인트 로마”와 “코로라도 섬” & 기차여행

지명	시간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일정표	비고
기독교일보	08:00	기독교일보 집결 (3020 Wilshire Blvd, #160)	대형 고급 버스
유니온 역	08:30	유니온 역 도착 후 승차 수속	
	08:40	기차 탑승 [태평양 연안 기차 여행] 출발	
오션사이드	10:52	오션사이드 도착 후 렉시 뷔페 중식	기차 여행
포인트로마	13:30	포인트로마로 이동 및 도착 후 [추억 여행] 주어진 미션 수행 [사진 촬영]	
샌디에고	14:30	샌디에고로 이동 및 도착 [항만 관광]	중식: 렉시 뷔페
	15:00	[페리 탑승] 코로라도 섬으로 이동	
코로라도 섬	16:15	호텔 델 콜로라도 [추억 여행] 후 L.A.로 출발	
기독교일보	18:30	기독교일보 도착 및 해산 /안녕히 가십시오	

포함 사항 - 대형 버스, 중식(렉시 뷔페), 기차(L.A. Union to Oceanside), 포인트로마 입장료, 페리 탑승 요금 등.
불 포함 사항 - 모든 팁(버스 기사, 관광 가이드 등) 및 여행보험

호텔 델 콜로라도

페리

포인트로마 등대

The Lux Buffet
일식 뷔페

팁(\$10)별도
\$99
기차 포함

오션사이드 피어

기차 여행

Tel. (213)739-0403, (213)434-1170 /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 chdailya@gmail.com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SPRING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7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31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8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7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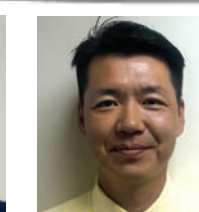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신앙의 자유 누리는 교회, 이승만의 공 기억하길”

이승만연구원장 김명섭 연세대 교수 인터뷰

왜 기독교인들이 떨쳐 일어나게 되었는가
기독교 신앙, 한 인간에게 독립정신 갖게 해
美의 6.25 참전에 해리스 목사 역할 커

최근 공영방송 KBS를 통해 전과를 탄 도올 김용옥 교수(한신대 석좌)의 반(反) 이승만 발언은 사회 각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과격한 발언도 문제였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는 기독교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故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였고, 독립과 호국 과정에 남긴 그의 발자취엔 기독교 흔적이 선명하기 때문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금, 사회는 ‘이승만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대답해야 할지도 모른다.

연세대학교 부설 이승만연구원 원장인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났다. 2003년 연세대 교수로 오기 전엔 한신대 국제학부장 겸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80년대, 이른바 ‘수정주의’ 시각을 담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 집필에도 참여했다. 이런 이력과 ‘이승만 연구’가 언뜻 어색해 보인다. 그는 지금도 스스로를 ‘진보 학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이 이 길로 이끌었다’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過)에 비해 공(功)이 비이성적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그를 인터뷰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나?

“처음 기독교와 접촉하게 된 것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배재학당에서였다. 그러나 그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고종의 전제독재에 반대했던 그는, 결국 한성감옥에 갇히고 만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 죽을 지도 모를 절박한 상황, 애국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현실이 그로 하여금 초월의 대상을 찾게 한 것 같다.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초월적인 것이었다. 그만이 독특했다기보다 초월성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 자신이 홀로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서는 것 말이다. 오직 그 분과 나의 관계,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아닐까? 이승만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서 그런 초월적 신앙을 체험했다.”

이것이 또한 그의 ‘독립정신’ 집필로 이어졌나?

“그렇다. 감옥에서 그의 기독교 신앙에 기초해서 써 내려간 것이 바로 「독립정신」이다. 우리는 그 안에 면면히 흐르는 우남(雲南, 이승만 전 대통령의 호)의 기독교 신앙을 접할 수 있다.”

“다만 천도가 있어서 지극히 광대하고 지극히 장원한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실천한다면, 천지 만물을 만들어 홀로 다스리시며 만국의 만민을 다 굵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접 보는 듯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은 보시지 못하는 것도 없고 아시지 못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손으로 짓는 죄만 벌하실 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살펴보고 계시니, 어찌 두렵고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갚을 수 없고, 다만 예수의 뒤를 따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일하는 것뿐이다.”

기독교 신앙과 ‘독립’은 어떤 관계가 있나?

“앞서 말했듯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초월성이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 하여금 독립정신을 갖게 만든다. 종교개혁 이전만 해도 속죄의 기도는 스스로 할 수 없었고,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거치며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독립된 사체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에 개신교 신앙은 독립정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3.1운동 당시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와도 연결된다.

우리가 100년 전 3.1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했던 역할을 종종 조명한다. 그러면서 당시 33명의 민족지도자들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대한 일이지만, 단지 양적 접근에만 머문다는 인상을 받는다.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장소를 제공했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인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 ‘왜 기독교인들이 떨쳐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다른 아닌 기독교 신앙이 가진 독립정신 때문이다. 그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지



김명섭 교수가 액자 속의 이승만 전 대통령과 프레데릭 B. 해리스 목사를 가리키고 있다.

금의 우리도 성찰할 수 있다. ‘과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독립정신이 있는가?’

이승만에게 있어 독립이란,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었나?

“흔히 독립하면 일본만 떠올린다. 그러나 이승만에게 그렇지 않았다. 그에게 독립은 본질적으로 인간 영혼에 대한 것이었으며,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과거 조선을 억눌러 온 모든 것들로부터 마침내 이룩해 내야 할 것이었다. 이런 역사적 건지는 그의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초월적 눈으로 역사를 보고자 했기에 다른 이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조선은, 조선의 황제나 베이징의 천자를 신처럼 섬기던 주자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공맹사상을 도그마(dogma)로 만든 주자학에 기초한 중화주의는 조선의 정신마저 종속시켰다. 그의 역사관은 병자호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것으로부터 이승만은 독립을 되찾고자 했다. 또한 그에게 있어 개인과 나라의 독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였다. 나라가 독립하자면 우선 개인이 먼저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대에 가히 혁명적 사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독립정신」을 한글로 썼다. 순 한글로 된 최초의 정치사상서가 바로 「독립정신」이다. 한문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사서삼경을 공부했던 그는 한문에 능통했다. 그가 굳이 한글로 쓴 데는 이유가 있었다. 남녀노소 신봉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백성들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우려...”

이승만 전 대통령 하면 ‘반공’이 떠오른다. 이런 독립정신과도 관계가 있을까?

“독립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다. 우남이 독립을 외쳤던 건, 당시 주자학적 세계관에 의해 자유가 억압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 그 중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인권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으로 생각했다. 일제는 105인 사건을 일으켜 이 자유를 빼앗으려 했고, 우남이 이와 관련해 쓴 책이 바로 「한국교회 핍박」이다.

자연히 그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남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1923년 「태평양잡지」에 게재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글이 있다. 여기에서 그는 공산주의의 합당한 점과 부당한 점을 열거한다. 합당한 것으로는 평등사상을 꼽았다. 그리고 부당한 다섯 가지 중 하나로 다른 아닌 교회회를 없애려 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엔 소련의 힘을 빌려서라도 항일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던 때였다. 국무총리 이동휘도 그런 입장에 섰었다. 그러나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 대가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발로였다. 이승만은 이미 이 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다. 「독립정신」의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마땅히 우리는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고, 나라를 한마음으로 받들어 영국·미국 등 각국과 동등한 나

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후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났ся다.”

이승만을 논할 때 6.25전쟁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미국의 참전 결정에 그와 **故 빌리 그레함 목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 교수는 “미국의 참전 결정에 빌리 그레함 목사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다”며 프레데릭 B. 해리스(Frederick Brown Harris, 1883~1970) 목사를 언급했다.)

“해리스 목사는 1950년 초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대한민국 태극훈장을 받았고, 1956년 방한 시 서울 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리스 목사로 하여금 처음 코리아(Korea)를 위한 활동을 하게 했던 인물은 그가 목회를 담당했던 파운드리감리교회 교인이었던 이승만이었다. 해리스 목사의 한국 관련 활동은 주로 이승만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미관계의 역사나 한국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에 있어서 해리스 목사의 역할은 작지 않았다. 24년 동안 상원 원목(Senate Chaplain)으로 재직했던 해리스 목사는 한국계에서 이승만의 로비스트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로비의 대상이 될지언정 일개 로비스트가 아니었다. 해리스 목사는 미국 대통령은 물론 영국 수상, 중화민국 최고지도자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 등 세계 지도자급 인물들과 친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했던 인물이었다.

특히, 해리스 목사와 이승만의 관계는 미국의 루스벨트 행정부 시기부터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까지의 한미현대사를 재조명하게 해준다. 김진영 기자 [17면에 이어서]

Heypapa Music

www.heyppapamusic.com

헤이파파 뮤직에서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음향장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최상의 시스템으로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인터넷 최저가!

모든 음향장비, 카메라, 프로젝터, 악기, 라이팅 구입시 혜택!

2 무료방문 2회!

음향장비 구입 & 설치 하실 경우 방문하여 시스템 작동 설명



Nord Stage 3 88 Stage Keyboard (요즘 가장 많이 쓰는 키보드 브랜드, 많은 워십팀들이 사용합니다)



Rode VMP-R VideoMic Pro On-Camera Shotgun Microphone with Rycote Lyre Suspension Mount



Panasonic PT-RZ970BU



ClearSonic IsoPac A - Dark Gray



Midas M32 Digital Mixer

Ethan Lee Technical Director T. (310)508-7966(Kor, Eng)

“기독교인으로서의 선각자적 면모 많은 영혼 흔들어”

4.19만으로 평가하는 건 균형적이지 못해

공의의 눈으로 이승만 다시 봐주었으면

프레데릭 B. 해리스 목사, 한국 기독교인의 존재 알려

[16면에 이어서]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휘하의 조선인민군이 38선을 넘어 전면적 군사공격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의회의 비준에 앞서 신속하게 미군을 파병했다. 해리스 목사를 통해 형성된 트루먼 대통령과 이승만의 관계는 이러한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들 중 하나였다.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파병 결정에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6.25전쟁 발발 직후 그레함 목사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코리아의 남쪽에는 인구대비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들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전보를 보냈다. 그런데 당시 빌리 그레함은 31세의 소장목사였고, 전보를 보낼 당시까지는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그레함 목사는 1950년 7월 14일 처음 트루먼 대통령을 만났다. 그레함 목사에 비해 해리스 목사는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부터 친밀한 관계를 쌓았다. 6·25전쟁이 터지기 약 한 달 전, 해리스 목사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한국의 이승만을 국민으로 초청할 것을 요청했다. 해리스 목사는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한

국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 6·25 전쟁 발발 직후 이루어졌던 트루먼 대통령의 신속한 파병결정은 이러한 해리스 목사의 사전 활동과 무관하지 않았다. 6·25전쟁 기간 중 해리스 목사는 파운드리감리교회 성도를 중심으로 구호성금 및 방한용품을 모아 전란 중의 한국을 돕기도 했다. 그는 전후의 대한원조에도 관여했으며, 1956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로 방한했다.”

미국의 6.25전쟁 참전 결정엔 그들의 '기독교적 양심' 도 작용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6.25 전쟁이 자유, 특히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 체제와의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의 존재를 알려준 인물들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해리스 목사나 그레함 목사와 같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이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에 기여했고, 자유의 기초를 놓았지만, 4.19혁명으로 물러나 하와이에서 숨을 거두었다.

“누구나 공과(功過)가 있다. 공만으로 그를 우상화해서도, 과만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매도해서도 안 된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비록 애굽사람을 쳐 죽였고, 직접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살인자로 기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낸 지도자로 존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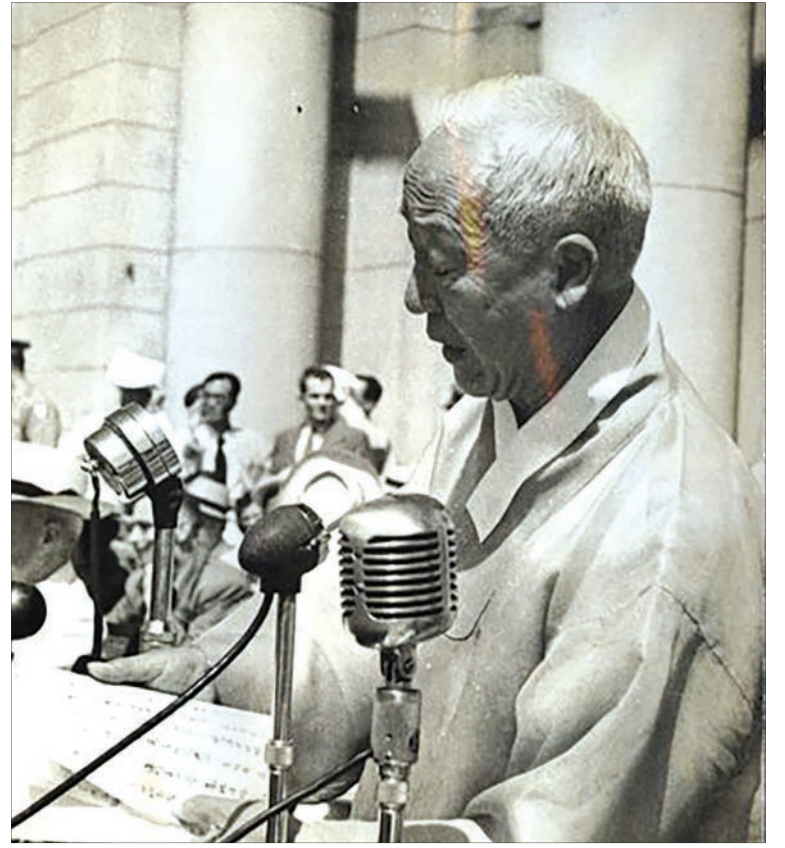
4.19혁명에 대한 기억만으로 이승만의 총체적 생애를 평가하는 것은 균형적이지 못하다. 대한 독립과 호국의 과정에서 그가 보였던 리더십,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유례가 없는 동맹조약을 체결해 전쟁의 재발을 막은 공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가졌던 선각자적 면모는 당대 많은 이들의 영혼을 흔들었다. 1965년 이승만의 장례식 때 거리로 나왔던 백만 인파가 이를 웅변한다.”

끝으로 한국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공의의 눈으로 우남 이승만을 다시 봐주었으면 좋겠다. 우상화하진 말되,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젠 그의 과오와 함께 그의 공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한 기독교 지성이 필요한 때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지켜온 중심에 이승만

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김명섭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사, 정치학 석사, 파리1-판테옹 소르본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한신대학교 국제학부장 및 국제관계학부 부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있다. 제19대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을 역임

했으며, 2015년부터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집필에 참여했으며, 『Northeast Asia and the Two Koreas』(공저) 등 역사정치학 분야 다수의 저서 및 학술논문들이 있다. 특히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권체제의 탄생』은 2017년도 아시아학자세계총회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상, 2018년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각각 수상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연구원

“죽음 앞에서도 초연했던... 불꽃같이 살다 간 박누가 선교사”

임주현 감독이 전하는 영화 <아픈만큼 사랑한다>

임주현 감독은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원작 KBS '인간극장 백발의 연인' 편을 비롯해 약 20여 편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베테랑 PD다. 그가 2012년과 2016년 KBS '인간극장'을 통해 소개한故 박누가 선교사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물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작품을 영화화 했다. 바로 <아픈 만큼 사랑한다>.

임주현 감독은 불꽃같이 살다 가신故 박누가 선교사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각박하게 느껴지는 삶 속에서 박누가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본다면 마음 한 편이 따뜻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어떤 영화 입니까?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한 명의 선교사로서, 외과의사로

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한 삶을 불꽃같이 살다 가신故 박누가 선교사의 삶을 다룬 영화다. 박누가 선교사는 약 30년 동안 필리핀 오지부터 도시의 빈민가, 반군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항상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다. 각박하게 느껴지는 삶 속에서 박누가 선교사를 만나면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느껴질 거라 생각한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박누가 선교사가 돌아가신 후에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인간 박누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했다. 의사나 선교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박누가'의 가치관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을 거

라 생각했다. 방송을 통해 두 번 소개했던 선교사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일말의 후회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혹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故 박누가 선교사에게 보물 1호라 불리는 것이 있다. 바로 메디컬 버스 1대이다. 깊은 오지부터 먼 섬 지역까지 선교사의 발과 병원이 되어주고, 숙소가 되기도 했던 메디컬 버스. 그 버스는 2016년 '인간극장' 방송 이후, 조카 주희 씨가 틈틈이 관리 했지만 운행하는 사람이 없어 그마저도 쉽지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타이어를 도둑 맞기도 했고, 파손된 부분이 늘어가면서, 박누가 선교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덴시오 씨에게 버스를 맡기로 결심했다. 차

로 6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이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출발 당일까지도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모두가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정말 극적으로, 선교사의 첫 직원이었던 라피 씨가 버스원정대에 합류하면서, 버스를 무사히 덴시오 씨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생전 박누가 선교사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는가?

“故 박누가 선교사는 죽음 앞에서도 초연히 본인이 하던 일 계속하셨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선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지만, 내가 필리핀 오지 무의촌에 가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며 의료 봉사를 멈추지 않았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故 박누가 선교사는 우리에게 진정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지신 것 같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 등 이러한 것들이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당장 앞에 있는 것들만 신경쓰며 살아간다. 그래서 이 작품 속 박누가 선교사를 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 영화를 반드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객이 있는지?

“본인이 아파왔기 때문에 그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인 만큼, 박누가 선교사의 이야기가 많은 관객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김신의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19년 봄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2019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집과정

◆학사 과정 (B.Th/B.A)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석사 과정 (M.Div/M.A)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박사 과정 (D.Min/Ph.D)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수시 입학 가능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가능
- 2)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 수여가능
- 3)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 (학점교환 가능)

수시 입학 가능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 찬양 사역자 구함
- 기타 연주하시는 분
- 드럼 연주하시는 분
-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
- 기타 악기 연주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Scott Kim Studio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 드립니다.
10년 후 펼쳐봐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Scott Kim Studio가 함께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세요)

- 교회 출장 사진 전문
- 영정 사진
- 가족 사진
- 입관·하관 예배
- 부동산 홍보

결혼 사진, 제품 사진
회사 이벤트, 인물 사진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 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지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7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고난주간 한끼 금식 한생명 살리기

2019.4.1 |월| ~ 4.21 |일|

2019전세계 빈곤아동돕기

고난주간 금식운동은 성도들이 하루 한끼 이상 굶고 그 금액을 하루 한끼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지금도 1분에 30명, 하루5만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월\$35 이면 아동 한명이 한달동안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100 이면 아이티 아동 10명이 한달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5,200 이면 아프리카에 4,000명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헌금은 32개 빈곤국가의 아동들을 위한 **금식 및 식수지원사업비**로 사용됩니다.

877-499-9898

kr.goodneighbors.us

보내실곳: Good Neighbors USA P.O. BOX 5969, Buena Park, 90622

문의: jkim@goodneighbors.us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52개 지부, 북한 및 해외 38개국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의료비 대책 세우셨습니까?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비 나눔을 통해 의료비 걱정을 해결합니다.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4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짐을 서로 지라 (갈 6:2)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의료비 나눔과 중보 기도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선교회 산하에서 1996년에 시작된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지난 23년 동안 문제없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입니다.

23년 역사의 CMM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건강합니다!

- 저렴한 회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질병당 \$150,000)
- 미국 내 의사나 병원 제한 없이 지원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골드플러스 회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500/1년)
- 새 회원 소개 시 회비 크레딧을 주는 Member Referral 제도
- 장례비 보조를 위한 Life Plan (사망시 평균 회비의 100배 지원)
- CA 샌디에고 인근 라모나 기도원/쉼터 이용시 할인 혜택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 을 드립니다.

Life Plan
회원 사망시 장례비* 지원

*평균 회비의 100배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 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입니다. 비싼 보험료, 높은 디덕터블로 꼭 필요할 때 도움 받기 힘든 일반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p>저렴한 회비 월40월부터 가입 가능 (자녀 1명만 내면 나머지 자녀 무료)</p>	<p>낮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이상 의료비 할인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p>	<p>다양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처방약, 임신 및 출산, 입원/수술비 등</p>
<p>골드플러스건강검진비지원 매년 \$500 건강 검진비</p>	<p>의료비 지원금 질병당 \$150,000</p>	<p>Burden Sharing 15만불 이상 의료비는 전 회원이 함께 나눠 100만불까지 지원 가능</p>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M 캘리포니아 가입문의:
 직통: 714-333-7487 Email: sungaeshin
 캘리포니아 사무실: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인터넷가입 www.cmmlogos.org

